

4.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신앙고백

찬 송 :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요한복음 4장 3-26절

말씀독상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던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1.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18).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으러 갔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던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방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실패, 좌절 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2.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20-21).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마자 예배에 대해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며 위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으며, 지역이나 성별, 개인의 형편과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23-24).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순전한 분이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마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맺는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황하며 절망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적용

한 주간 동안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흥공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선교)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1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제직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4. 설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지
설날 추모예배와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떡국떡·가래떡 판매
예배 후 여신도회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각 1봉 1만원)
6.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7.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부금 증명서 신청
필경대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헌금안내
오늘부터 온라인헌금 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입원 - 박상민권사 (경희다원한방병원)
현물 - 하연주집사 가정에서 딸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33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4. 시편 5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88장 다같이
기도	1부:나차금 권사 2부:최광순 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17장 1-8절(신약 29) 인도자
찬양	주님의 세계 영상
말씀	주만 바라볼찌라(43) 영화로운 변화 임창세 목사

월 봉사위원

1-2		1월 23일	1월 30일	2월 6일	2월 13일
예배 기도	1부	나차금	안혜자	정귀자	남영옥
	2부	최광순	전옥자	임순조	심은영
	3부				
헌금위원		(1월) 1부 : 하연주	2부 : 강인식		
		(2월) 1부 : 안상분	2부 : 정장환		

결단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시선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일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임창세 목사	둔전아침묵상

【마태복음 17장 1-8절】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일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홍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둔전교회
DUNJEON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묵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운지 김용수·이미숙 김현대·김정은 남효정 백승환·최미연 석장환 윤종찬
 이복음 정재현 조명숙 최광순 한춘자 홍지현 홍춘근

◆ 감사헌금

김수매 김예진 김주용 김현대·김정은 남영옥 남효정 박순옥 박연우 박재락
 유병주 유병희 윤종찬 이순자 정귀자 조명숙 최충균·송애련 황미선 무명1

◆ 선교헌금

◆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482,000	430,000	3,20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